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오늘 시점에서 보면 '민주당 승리 예측'이다. 대통령 후광효과로 선거가 취임일에 가까울수록 여당에 유리하다.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즈음으로 당시 그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선거 전날 북미정상 회담은 민주당 압승의 확인이다. 2022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22일 만으로 '히니문 효과'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이 때다. 2018년과 2022년 지선 모두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결과는 양대 정당독점과 반북되는 특정정당의 쏠림이다. 2022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872석 대부분을 국민의힘(540석·62%)과 민주당(322석·37%)이 독점한다.

양당의 독점은 자신의 텃밭 지배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광역의회 의석의 90%이상을 차지한다. 대구는 32석 중 31석 광주 는 23석 중 22석이다. 양당은 교대로 특정 정당 쏠림의 정치적 행운을 누린다. 2018년 광역단체장 기준 민주당(14) vs 자유한국당(2)은 2022년 국민의힘(12) vs 민주당(5)으로 바뀐다. 기초단체장도 2018년 '151 vs 53'은 2022년 '63 vs 145'로 역전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0석 중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102석을 얻는다. 지역구 선거는 '97 vs 3'으로 비례 포함 6석의 당시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도 구성못했다. 경기도의회도 민주당은 142석 중 135석으로 압도한다. 자유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는 정확하게 반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경기도의회도 민주당 압도에서 양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1석씩 더 얻으며 여야 동수 의회가 된다.

강원도의회도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엇갈린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37/44석) 2018년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35/46석)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국민의힘(43/49석)이 압도적 의석을 갖는다.

소선거구+단순다수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의 당연한 결과로 결국 양대 정당으로의 수렴이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로 심각하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은 51%의 득표율로 93% 의석을 독점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를 득표하지만 의석은 5%에 불과하다. 당시 바른미래당(12%)과 정의당(10%)은 각각 1석씩 얻는데 그친다. 민주당 지지표와 바른미래당 지지표 1표의 가치가 23배 이상 차이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대량 사표발생을 완화하자는 비례대표도 역할을 못한다.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OECD 34개국 중 1등만 당선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시행한다. 결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거대 양당 중심의 지방정치로 대립구조 고착화다. 소수 의견은 배제되며 정치적 대표성도 약화된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상실도 당연하다.

텃밭의 양당 독점과 엇갈리는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 급증으로 이어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508명으로 2002년 이후 최다다. 군소정당이 발발일 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이유다.

대안은 첫째, 지역정당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특히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지방 없는 지방자치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지역정당이 활발하다. 우리도 '직접행동영등포당은 문래동의 공공공지 문제, 은평민들레당은 불광천 생태하천 복원,과천시민정지당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신설 문제' 같은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집중하게 하자. 지역정당은 공천이 당선이고 공천권을 가진 중앙 정치인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지역과 중앙정치의 대리전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의제정당의 활성화는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혁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둘째,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다. 지역정당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원성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시킨다. 협치의 필요성을 높이고 정책경쟁을 유인한다.

셋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다. 원내 8개 정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전하람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는 지방정치의 다양화와 다당제 정치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지방 있는 지방자치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약속한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 온갖 압제와 핍박을 받던 그 어려운 시기에 원불교 소태산대종사(少山大宗師,1916~1943)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였다. 정신적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가는 지도국이 되고 점진적으로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이 되어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가난하기만 하던 우리나라, 더구나 일제식민지가 되어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던 암울한 시기였다. 그런데 밝은 해안으로 바라본 미래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전쟁과 기난으로 찌들어 왔던 우리나라, 원조수혜국(援助受惠國)이라는 불명에 속에서 생활해왔던 우리가 이제 원조공여국(援助供與國)이라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환골탈태한 세계의 유례가 없는 국가가 되었다. 어변성룡이 되는 나라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민통치 35년과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짧은 시일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반만년동안

어변성룡(魚變成龍)의 나라

가난에 시달리던 수천만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까지 얻어낸 것은 인류사에서 놀랄만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대중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자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길에 앞장서기는 마음공부, 성불제중의 대가들이 되어야 하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후서원을 살펴보면 중생무번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는 제중의 길이며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斷斷),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學學),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은 바로 성불의 길이다. 아프리카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혜심 교무는 남아공월드컵 당시 어린이들이 한국의 사물놀이를 월드컵기간에 공연하고 하나가 되었고 경연 프로들은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우승자를 뽑고, 국가의 민원이나 장차관 추천을 통해서 주권을 찾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노력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강조하고 있기에 누구나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는데 자신을 담금질해야 할 것이다.

중국 명나라 때 원황(袁黃,1533~1606)은 10살 때 한 도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도인은 원황의 일생에 대해 예언해 주었다. 벼슬을 얻기는 하나 제한된 지위에 머무를 것이며 53세에 죽을 운명으로 아들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후 20여 년간 그 도인이 말한 예언대로 원황의 운명이 맞았다. 심지어 녹봉을 받는 쌀의 양까지 맞춰버렸기에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되는데로 방종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고승인 운곡 선사를 만나고 유불선 3교의 진리를 들어 “모든 복이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을 좇아 찾으면 감응해서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육조단경’의 말씀과 더불어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인간이 스스로 부른 재앙은 회복할 수 없다”는 ‘서경’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공과격(功過格)이란 날마다 행한 잘잘못을 기록하고 따져봄으로써 과오를 범하지 않고 선행을 쌓아가도록 해준다”고 이끌 어준 도교의 말씀을 전하면서 “범부만이 운명에 속박될 뿐”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이에 크게 깨달은 원황은 다시 노력하여 과거시험에 3등으로 합격하리라는 도인의 예언과는 달리 장원으로 합격을 했고 일흔이 넘도록 장수를 누리고 아들까지 있고 행복하게 살았다. 운명을 뛰어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그로부터 원황은 호를 요법(了凡) 즉 “범상함을 끝내겠다”라는 뜻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고사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운명이 된다는 사실이다.

전제 화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노력을 다하라, 숙명적 노력을”.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본다. 어변성룡의 나라 즉 국운이 열려가는 나라에서 또한 원하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나 자신, 그 활짝 열려있는 길을 향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가도록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기 고



조호균
전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광주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를 축으로 한 다층적인 공약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광주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정부의 공약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예산과 실행계획을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국가 예산과 프로젝트를 확보하려면 광주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국가사업 선점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은 바로 '정책 연계력'이다.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즉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어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는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

이재명 정부 공약 실현, 광주시가 기획 주도해야

시범도시' 조성 공약과 연계하여 기존 인공지능산업융합지구(북구 첨단3지구)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중심으로 '광주형 AI 혁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 의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X 실증밸리' 사업 역시 단순한 수혜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가 직접 실증 주체를 기획하고 시민 체험형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는 기존 제조 기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실행계획을 통해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시 자체의 실행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산 편성은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와 시의회의 협조, TP·GIST등 지역 핵심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투자계획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광주교육청과 연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면 지역의 미래세대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전략은 광주시 혼자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시민 참여와 지역 협치 생태계 조성도 반드시 따

라야 한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AI·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경연대회와 펀딩을 지원하고 GIST와 전남대는 공동 R&D 및 윤리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연구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역 기업들과는 탄소중립 및 ESG 기반 산업 전환 협약을 체결해 경제구조 혁신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2025~2026년에는 정부예산 연계사업 기획과 시범사업 유치에 집중하고 2026~2027년에는 모빌리티 클러스터 착공 등 실행기로 전환해야 한다. 2028년 이후에는 광주시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단순한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조율하는 '정치적 기회 구조'다. 이는 정부 정책을 단순히 따르기보다 지방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광주시는 수동적인 예산 청구자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주도적 기획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 강한 실행력,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광주가 중앙정부 공약의 수혜지를 넘어 정책 창출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복합쇼핑몰 교통대책 ‘핑퐁’ 쳐서 될 일인가

광주의 양대 복합쇼핑몰 사업인 '더현대 광주'와 '그레이트 시티 광천'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교통대책을 두고 광주시와 광주 북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어제 광주 북구는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 건축을 허가했고 광천터미널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광주신세계는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꿀잼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광주의 복합쇼핑몰 쌍두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신설로 인한 광천동과 임동 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을 놓고 광주시와 북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북구가 더현대 광주 건축 승인을 하면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를 두고 광주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핑퐁 행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구는 전남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얼마 전 22개의 교통환경 개선안을 광주시에 건의해 8개 안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받아 그제 다시 건의하면서 사업자에게 프로야구 경기시 소풍몰 주차장 활용 등 4가지 강제 이행조건을 달아 건축을 승인했다.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 기조와 반대로 차량 교통량을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8개 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이미 낸 공공기여금 600억원은 북구가 집행할 수 있으므로 알아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라는 광주시의 속 좁은 대응이다.

복합쇼핑몰 성공의 전제 조건은 교통난 해소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량이 많은데 근접한 장소에 두 곳이 들어서면 교통지옥은 볼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광주시와 북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출마 경쟁자로 거론되는 두 자치단체장 간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을 위한 행정 없이 선택을 받는 자치단체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만족도 ‘꼴찌’ 빛가람혁신도시 개선책 절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동안에도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꼴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공동 혁신도시인 만큼 광주시에 전남도가 나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66.2점에 그쳤다. 전국 평균(69.4점)보다 3.2점 낮은 것으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였다. 5개 항목에 걸쳐 조사했는데 주거 환경(70.4점), 여가활동 환경(60.1점), 편의·의료 서비스 환경(64.3점), 교통 환경(58.5점), 보육·교육 환경(63.9점)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보다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즐비하고 규모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크다. 나주에 있기는 하지만 광주 인근이라 대도시 주민들이 누릴 만큼의 생활 편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계 교통망이 떨어지고 혁신도시내 교육과 의료 환경이 열악해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동 혁신도시라는 정신을 살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손을 맞잡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71%의 응답자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광역시인 광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면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無等鼓

지난 17일 KIA와 KT의 경기가 끝난 뒤 새로운 출발을 맞은 이와의 즐거운 인터뷰를 했다. 주인공은 이날 데뷔전을 치른 KIA '고졸 루키' 이호민이었다.

지난주 KT는 주말 2경기에서 27점을 만든 뜨거운 방망이를 앞세워 광주를 찾았다. 이호민은 이런 KT 타자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에 나섰다. 첫 상대부터 쉽지 않았다.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중 하나인 안현민이었다. 신인왕 트로피에 '안현'까지 새겨졌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타격을 선보

첫 상대에 대한 관심은 컸다. 첫 승부에 대한 질문에 정작 공을 던졌던 이호민은 "안현민 선수였어요?"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치른 데뷔전이었다. 경기 내용은 베테랑처럼 담대했지만 말이다.

을 시즌 KIA는 부상선수가 이어지면서 순의 싸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6월 들어 턱아웃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상'은 핑계가 아니라 변화의 계기가 됐다.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경험을 통해 싸울 준비를 끝내면서 팀이 단

단해졌다. 김호영이 타격에서도 역할을 하고있고 베테랑 최형우는 여전히

타이코존에 놓였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됐지만 이호민은 이어 이정훈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고 로하스는 4루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체인지업에 로하스는 턱아웃으로 물러났다. 허경민까지 좌익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이호민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기가 끝난 뒤 이호민은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기다렸던 순간을 복기했다. KBO 미래들의 맛대결이었던 만큼

히 득점하다. 마운드에서는 김도현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토종 에이스로 거듭났다. 정식선수가 된 성영탁은 '미스터 제로'의 모습으로 고민 많던 불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호민이라는 루키도 기회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

KIA는 전력의 새판을 짜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군가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었다. 원래 그라운드의 삶은 그랬다. 새로운 스타는 혼돈 속에 탄생하곤 했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 영 지 원 국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경 제 부 220-0648	에 향 부 220-0692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디 지 털 부 220-0697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